

충실한 번역기제로 문화산업 수출, '발상 전환' 도...

'외국문화로 다른 삶 이해하려는 집단' 독자층으로
과감한 투자 치밀한 노력, '번역문학 질 높여야'

글_유영난 번역가

지난 10여 년 간 다섯 권의 한국소설을 번역해 미국에서 출판했다. 2005년 연상섭의 《삼대》가 출판되었을 때는 번역자의 일이 번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미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한국의 지원단체에서 출판지원금을 받고 책을 낸 영세한 미국 출판사들은 제대로 책을 홍보하고 큰 책방에 진열할 힘조차 없었다. 그간 스스로 지명한 홍보대사가 되어 좌충우돌 뛰다보니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다. 이 글은 그간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문학작품을 문화산업의 일부로 보고 독자층을 넓히는 방안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짚어보면서 문화상품의 내용면에서 충실을 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번역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해외작품을 들여다 우리나라에서 현지화하려는 노력과 근본적인 생각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시장을 바로 알자

미국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1999~2000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에 약 10만종의 책이 출판되는데, 그 중에 시, 소설 등 문학작품은 300종에 불과하다. 그만큼 문학번역 작품이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도 뜻있는 사람들이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보자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 번역문학전문출판사를 만들고, 인터넷 문학잡지도 운영하고, 다른 나라의 작가와 번역자들을 초대해서 출판계 인사를 만나게 해주며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분야이므로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문학번역과 출판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문학을 알리려면 독자층을 넓히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서는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영어로 써서 출판하고 어느 정도 주류권에도 알려지고 있으므로, 굳이 번역문학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화권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물은 독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국문학 번역물의 경우 미국 대학의 한국학 교과서로 주로 쓰이고 있다. 내가 처음 번역한 박완서의 《나목》이 10년 동안 2,000권이 팔렸는데, 한국번역작품 치고는 베스트셀러 수준이었다. 주요 독자는 한국문학, 역사, 문화, 비교문학, 여성학을 공부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었다.

가장 독자가 없다는 순수문학의 경우, 미국에서 3,000권은 팔려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그 큰 시장에서 3,000권을 못 팔까 싶지만 현재까지는 한국문학번역물이 넘기 어려운 벽이다. 어떻게 독자를 확보하고 유지시키고 넓혀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문화를 알리는 훌륭한 매개체

우리가 순수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번역했을 때 반드시 좋은 문학으로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번역되는 장르인 시는 시로 읽히기 어렵고, 미국의 순수문학 시장에서조차 시집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 미국의 독자와 출판사들은 단편소설보다 장편소설을 선호한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밀고 나아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수용가능성이 있는 것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독자층을 외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학을 통

해 다른 삶을 이해하려는 집단으로 넓혀야 한다.

일단 떠오르는 집단이 재미교포 2~3세, 그리고 한국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살고 있거나 살았던 외교관, 사업가, 영어교사, 또 영어공부를 하는 우리나라 학생도 포함된다. 이창래의 영어소설이 발표되면 관심을 보이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 집단의 독자들은 학계의 독자들보다 까다롭다. 대학에서는 스타일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이 좀 서툴더라도 관대한 편이다. 소설에 다닥다닥 각주를 붙여놓아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일반독자들은 술술 읽히는 번역을 선호한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번역서를 구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수입해서 팔아보아야 별로 남는 게 없으니 한국의 큰 서점에서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층이 순수문학을 읽는 부류를 포함한 영어권의 주류독자층이다. 만일 한국문학 번역서가 큰 출판사에서 나와 회자된다면 순수문학이 거치는 채널(비평가와 해당 미디어)을 통과한 후 미국문화의 한 부분인 독서클럽을 통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움베르토 에코 작품 등 결코 읽기 쉽지 않은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독서클럽들 덕분이다. 홍보력이 있는 큰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 원한다면 미국에서 에이전트부터 찾아야 한다. 이것도 상품성 있는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서서히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고무적이다.

일반 독자에게 접근하려면 번역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문학성을 갖춘 번역자가 하는 번역이라면 믿을 수 있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출판계에서 편집자의 입김은 대단하다. 미국의 우수작가가 쓴 작품도 편집자의 펜을 거쳐 독자에게 전달된다. 많은 작가들이 서두에 편집자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 다반사이고, 그렇게 다듬어지려면 작가와 편집자가 일년 넘게 상의하고, 고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다. 몇 년 전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를 번역했는데, 그것이 〈하버드 리뷰〉에 실렸다. 편집자와 수없이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몇 달 동안 함께 일했다. 세세한 단어선택의 토론을 넘어서서 결국은 1/3을 잘라내고, 미국의 단편소설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한국학계의 학생과 선생들은 미국의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번역자로서는 미국의 일반 독자에게 다가가려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경우는 문예잡지였고, 일단 길이가 보통 5,000자 이내인 영어단편에 비해 두 배나 길다는 이유도 포함된 과감한 결정이었다.

번역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좋은 번역이란 재창작이며 다시 쓰다시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나온 《삼대》도 일년 동안 편집자들과 거의 매일 이메일과 팩스로 의견을 교환하며 글을 다듬었다. 덕분에 평론가들로부터 “매끄러운 번역이다”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한국문학 작품의 경우 번역이 거칠어서 책을 끝까지 못 읽겠다는 독자들과의 불평을 종종 듣는다. 다각도로 편집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용해야 주류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번역자는 원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편집자들이 독자에게 짜증나지 않는 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발상을 바꾸자

최근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찌나 크고 작은 문제점이 많은지 코미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호텔식으로 짓는다면서 세면대는 수입대리석으로 번지르르한데, 그 아래는 우레탄 방수처리가 흉물스럽게 노출되어 있어 악취가 코를 찔렀다. 실외기실에는 온갖 기기를 구겨 넣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병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번역계도 예외는 아니다. 한-영 번역의 경우 무엇이든 급하게 당장 번역해달라고 하고, 부리나케 출판해서 낫뜨거운 작품을 양산하고 있다. 빠르게, 대강, 실적 위주의 경제발전 모델로는 더 이상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느리게, 꼼꼼히, 질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의 분위기를 쇠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 과감하게 좋은 번역자에게 투자하고, 지금까지 번역된 작품들을 미국출판계의 편집자를 고용해서 과연 출판할 수준에 이르렀는지 점검해야 한다. 전문 편집자를 고용해서 번역작품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인적, 물적 자원은 준비되어 있다. 발상만 전환하면 쉽게 이를 수 있는 목표다. 관료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판-번역 지원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이를 수 있는 목표다. 100권 대신 5권이라도 착실하게, 1~2년이 늦어지더라도 품질 좋은 작품을 내겠다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소비자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